

농산어촌 유학, 학령인구 감소 대안 '주목'



나건호 기자

▶ 지역 내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광산구 학생 956명이 북·서구 관내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으면서, 이와 비슷한 숫자의 북·서구 학생들이 남·동구 고교로 밀려난 것이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북구에 이어 상주인구가 2번째로 많은 광산구의 경우 구내 중학교가 26곳인데 반해 고교는 절반 이하인 11곳에 불과하다.

학교 정상화 문제로 3년째 신입생이 미달된 명진고를 제외한 모든 일반 고등학교가 한 학급당 학생 28명을 넘어서는 과밀학교 상태다.

이 탓에 광산구 중학교 졸업생들은 불가피하게 거리가 먼 다른 자치구 고교에 입학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다른 구의 연쇄 이동도 뒤따랐다.

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22개 고교에 27학급을 증설한 바 있지만, 전년보다 고교 배정 학생 수가 늘어나는 등 원거리 배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와 광산구 고등학생의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통학 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광산구와 함께 '광산교육진흥 TF' 협의회를 개최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광산교육지원청 복원 △광산구 과밀학급 해소 및 고등학교 신설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옛 하남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해 18개 학급·학생 486명으로 구성된 가칭 광산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개교는 오는 2027년 3월을 목표로 한다.

시교육청 행정예산과 관계자는 "학급 증설을 통해 학생 수요를 어느 정도 공급했지만, 이는 해결책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는 중·고등학교에 대해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당장은 과밀·원거리 배정 등을 없애기 위해 광산구에 신규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고등학교가 신설될 경우 지금보다 교육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전남교육청 '작은학교 살리기' 주력
자기주도적 학습·디지털 격차 해소
주거 여건 개선·편의시설 확충 나서
유학생, 첫해 82명→304명으로 늘어

학령인구감소로 초·중·고교가 수십년만에 휴교되는 등 열악해지는 전남 교육환경을 살리고자 전남도교육청이 농산어촌학교 유학 정책 등 작은학교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 등 총 5개교가 3월1일자 휴교 결정됐다.

초등학교 휴교는 지난해 17개교에서 올해 20개교(분교 포함)로 늘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분교 휴교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8년 전남 내 작은학교를 지원해 작은학교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남 작은학교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도교육청은 조례를 바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 중 '학생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작은학교로 지정해 특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남지역 내 '학생수 60명 이하의 학교'는 총 386개(초 242개, 중 126개, 고 144개)로 전체(868개교)의 44.5%에 달한다. 이 중 232개교(초 147개, 중 84개)가 작은학교로 지정돼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작은학교 장점을 반영한 교육과정 연계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학습·비학습적 요인을 파악해 인공지능 온라인 콘텐츠와 통합 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등 작은학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참좋은 작은학교'로 지정된 해남 현산초는 전교생이 28명 뿐이다. 하지만 학생 개인별 특성 분석을 통한 기초학력 책임교육, 문화예술체험학습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현산초만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학기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단계별 인라인 스케이트 인종제 실시, 주말 풋



지난해 해남 현산초 학생들이 여수에서 진행한 뮤지엄 아트 체험활동 모습. 전남교육청 제공

살 프로그램 운영 등 소통과 화합도 도모했다. 또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해 '마을교육공동체'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현산초는 기초·기본 학력 전담 교사를 배치해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도심의 학생들이 전남지역의 학교에서 일정기간 지낼 수 있는 농산어촌유학정책도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학령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농산어촌 유학정책 첫 해인 2021년 82명이던 유학생은 지난해 30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높아 70% 이상이 유학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도 크게 늘었다.

올해 1학기 농산어촌유학 신규모집 대상 학교는 전남 지역 19개 시·군 53개교(초 45교, 중7교, 초·중통합 1교)다. 도교육청은 유학생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혁신교육과 관계자는 "지방 소멸 위기는 지방자치단체들 힘만으로는 완화할 수 없는 거대한 도전"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현재 상황을 정확히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 및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교육복지와 학생복지를 구현할 계획"이라며 "또 지속가능 미래형 학교모형을 창출하고, 지자체 연계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작은학교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휴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 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

※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